

금남로에서

핏줄과 경제가 통일의 끈이다



박치경 수석논설위원

정말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에 환풍이 불고 있다. 이리다가 통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설마 하면서도 설레는 사람도 많다.

지난 8월 말,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다. DMZ 지뢰 폭발사고로 남북은 준 전시상태로까지 치달았다. 군대가 대거 전선으로 이동하고, 방어소만 당기면 이 땅이 모두 불구덩이가 될 판이었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해병 무드로 바뀌었다. 다음달 20일부터는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한국 국가원수가 과거 적성국 군대였던 인민해방군 행진을 지켜본 것은 '큰 사건'이었다. 중국 방문 후 귀국길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과 통일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또 한 번 희망에 부

풀게 했다. 중국과 우리가 끈끈해진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은 '형제국가'다. '순망치한'(舜亡商)이란 말이 양국 관계를 상징한다. 중국은 항일전쟁 때부터 북한과 인연이 남달랐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을 지원한 미군이 한반도 통일을 이룰 경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해 한국전쟁에 뛰어들었다. 이후 중국은 북한에 석유와 쌀을 지원해 확고한 지위를 확보했다.

중·러로 빠져나가는 '富'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 누구 못지않게 난맥을 보게 된다. 경제개발이 한창인 터에 코앞에서 포탄이 날아다니면 외국 투자자본은 떠나없이 빠져나갈 것이고, 중국경제는 급전직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역시 한반도의 분쟁을 원치 않는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국은 경제원조를 지렛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필요충분조건'(必要充分條件)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남의 손으로 통일의 길을 닦을 것인가? 남북이 대화와 대립을 반복하는 사이 한반도에서는 '손남'들이 안방을 노리고 있다. 한반도 머리의 양쪽 귀에 해당하는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을 들여다보자. 압록강변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丹東)은 북한-중국의 징검다리다. 양국 물자와 사람들이 압록강 철교를 오가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 가고 있다. 두만강변 국경지대는 러시아까지 가세해 더 복잡하다. 북한의 나선( 나선·선봉)-중국의 훈춘(珲春)-러시아의 하산이 어우러져 동북아의 '신(新) 트라이앵글'로 떠올랐다.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가 만난 것은 '돈' 때문이다. 북한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와 세계에 진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 땅만 내 줘도 돈이 제 발로 굴러 들어오는 북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다 돈까지 벌 수 있으니 그야말로 금강첨하다.

양래와 경협이 통일 지름길

이방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손을 잡는 마당에 한민족은 언제까지 얼굴을 붉혀야 하는가. 죽을 때까지 굶을 수 없고 바꾸지 못하는 게 혈육 아닌가. 이산가족 상봉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해야 한다. 흘

어진 피분이를 만나게 하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살지게 하는 경협을 외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선 금강산 관광이라도 재개하면 남북에 온기가 돌 것이다. 중동에서 맹위를 떨쳤던 한국 건설사들이 북핵에 진출해 실력을 발휘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을 이룰 수 있다. 남한 업체들이 북에서 길을 내고, 빌딩을 세우고 부두를 새로 짓는다면 당장 한국 경제의 숨통부터 뚫린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남한 건설사들 입장에서 북한 인프라 구축은 수십 년 동안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남쪽 젊은이들이 북한으로 발길을 옮기면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생판 모르는 남북의 청춘남녀가 새로운 핏줄을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단축된다.

남한 자본과 기술이 합작해 북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을 돌리면 세계경제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남북 경협으로 생산단가를 떨어뜨린 '한반도 산' 첨단제품은 일본을 누르고 미국을 건너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핏줄을 잇고 서로 도와 부자가 되는 일. 우리 스스로 통일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

/unipark@kwangju.co.kr

社說

달라진 것 하나 없는 해경의 허술한 대응

'승선자 명부 관리 허술' '항해 선박 모니터링 부재' '초기 대응 실패'와 골든 타임 허비', 추자도 근해 낚시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서 드러난 해경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이다.

제주해경경비안전부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사고 선박의 탑승 인원조차 정확히 확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제대로 작동만 됐어도 정확한 탑승 인원을 알 수 있는 해남 남성항과 제주 신양항의 CCTV는 모두 고장 난 상태였다고 한다. 특히 남성항의 경우 주민들이 CCTV 수리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예산 타령만 하면서 3년 넘게 방치해 해경의 관리부실이 어

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번만이 아니다. 해경의 경비안전센터는 사고 당일 악천후 상황에서 돌고래호의 어선위치 발신장치(V-PASS)가 1시간 이상 꺼져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약

천후 속에서 2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선박의 V-PASS 신호가 끊어졌다면 상황 파악을 하고 즉각 대응 조치에 착수했어야 했다. 해경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로 인해 '골든타임' 81분을 허비해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번 사고를 해경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돌아보자.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한 뒤 해경은 육상 수사 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구조 기능만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 재난 현장에 도착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던가.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다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해경의 맹성(猛省)이 있어야겠다. 아울러 낚시가 나빠졌는데도 운항을 강행했던, 여전히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편도 감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부담 줄일 수 없나

많은 어민들이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양식수산물 보험에 들고 있으나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높은 보험료는 고박꼬박 내지만 보험의 특성상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혜택도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남 지역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다른 지역의 보험금으로 대부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양식수산물 보험금 지급도 보험료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어민의 자부담과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툇과 가리비 등 양식 수산물 18개 품종에 대해 수산물 보험료 133억 원이 납부됐다. 그러나 올해 지급된 보험금은 전체 보험료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다.

거액의 보험료에도 혜택은 7건에 2억 9000만 원으로 쥐꼬리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연말까지도 납부 보험

료에 상응할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험금 지급의 증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보험을 판매한 수협만 큰 수익을 남길 것이 확실해졌다. 어민을 위해 운영되는 수협이 양식수산물 보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불어 해당 보험상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특정 탓에 보험료는 전남 어민들이 부담하고, 보험금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다른 지역에 빠져 나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영암군 여천에서 어민들이 힘들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험료 단가 조정과 고른 혜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업 지역을 특정해 납입된 보험료의 외부 유출을 막는 다든지, 재해가 많아 혜택이 크면 보험료를 높이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편칼럼

단박에 일어서다



고성혁 시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있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그만큼 쌓여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왼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을 한참 찾는다거나, 약을 먹고 나서 그것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를 두고 헛갈리는 것은 흔한 일이다. 처음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을 때 황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했다.

그러다가 문 열쇠도 없이 4차선 도로를 달려 간 산골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속상했던 기억들, 특히 서울서 내려온 아들과 함께 두 번씩이나 열쇠 없이 문 앞에서 호주머니를 뒤졌을 때는 그 밖의 다른 실수들이 생각하면서 이리다가 노망나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격정으로 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서서히 포기되어 버렸고 이제는 일정 부분 내 것인 양 익숙해졌다. 그런 것들 가운데 내 안의 미묘한 감정, 예컨대 그리움이나 설렘 혹은 기다림 같은 것들의 포기도 포함되어 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것처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머칠 전 향구도시를 찾을 일이 있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바다를 보기 위해 부두를 거닐었다. 해거름의 긴 여운이 바다를 적시고, 갈매기 몇 마리도 그 위에서 까먹고 있었다. 누군가, 패티 김의 '이별'을 긴 리듬의 색소폰으로 연주하고 있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석양의 빛나는 향구와 바람, 그 하늘을 떠도는 구름진 가락. 아마 그 정경은 내 감성을 극도로センチ멘탈하게 끌어올렸을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몇 년만임에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제 본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가왔다. 뜻밖의 조우에 잠깐 당황했다. 그 사

람의 등 뒤로 석양에 물든 바다가 넘실대고 있었다. 웃는 얼굴로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악수를 했다. 아, 그 따뜻한 사람의 감촉. 그 한 번의 악수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시인으로서 한용운도 이런 감각적 일탈을 통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말하지 않았을까.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은 오래 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 사람은 몇 마디 안부를 묻고는 다시 바다가 부서지는 언덕을 넘어 사라졌다. 바다를 보며 앉아 있는 내내 몇 년 전의 내 삶이 살아나 파리를 튼 구렁이처럼 파고들었다. 그동안의 망각과 상실 그리고 포기는 감쪽같이 없어지고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사무쳤다. 그 시절 곁에 머물던 사람들의 모습이 허공을 맴돌고 그때 품고 있었던 이상과 꿈, 그리고 그리움까지도 향기처럼 코끝을 자극했다. 아, 그 사람과 먹었던 밥과 술이라니..... 그리고 바람 부는 시가지를 배회하던 날들이라니.

사람 사는 세상에서 더러 가슴을 떨게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부대감도 있었고 어지러운 절망도 있었다. 희망과 평화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다. 그것이 뭉뚱그려

내 삶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 중심을 관통함으로써 있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나이가 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그 시절을 부정하랴. 어찌 그 시절을 잊을 수 있으랴. 어찌 삶을 반추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 사람. 한 때 추억을 공유한 사람. 나도 모르게 가슴 한 쪽에 따뜻한 감성을 심어 준 사람. 그리하여 내게 하늘의 달을 다시 쳐다보게 해 준 사람들.

그 사람이 내 안의 회오리를 알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 내가 가진 애듯한 마음을, 추억을, 그리움을 알지 못해도 하등 상관없다. 그것은 순전히 나의 일이나 내 몫이다.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다. 이렇게 세월이 단박에 일어서더니. 늙어가는 것이 포기하는 망상에서 벗어나 아직 내 가슴 안에라도 절절한 추억이 품고 있음을 알게 해 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밤바다처럼 출렁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먼바다의 야경을 바라보다 일어서다. 생각해보니 언제나 일어서는 것은 내게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대기업 공채, 취업 가뭄 속 단비 기대



박상도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최근 저성장 경제내 속에서 국내 주요 기업과 금융권이 9월부터 하반기 대규모 공개채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을 해소하려는 방침에 맞춰 올해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확대했다. 최근 한 국경제 불황의 주범인 메르스(MERS)로 인한 경제침체의 정년연장 등으로 정년 실업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기업들의 채용계획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과연 취업 가뭄(고용절

벽)이 해결될 수 있을까?

여기서 고용절벽이란 '경기침체,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으로 기업들의 채용규모는 줄어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평균 53세였던 대기업 정년인 2016년부터 60세로 연장되면서 신규채용이 위축되고 있다. 고용절벽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고용절벽 문제의 사회적 대두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장기근속직원에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고려되고 있다.

취업정보 전문기관인 잡 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하반기 공개채용을 앞두고 9월 초부터 기업들의 취업설명회 및 취업 박람회까지 연일 지속적으로 일정별 개최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채용박람회의 경우, 현장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정도는 반드시 지참하면, 의외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취업준비생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통계청은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 1999년 11.3%이후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9.4%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 실업률보다 2.5배나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가뭄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력 및 학습다 중요하다.

올해 하반기 채용방식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직무 적합성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어학 점수나 자격증 같은 이른바 '스펙' 기재 란이 상당수 대기업 입사지원서에서 사라졌다.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를 선별해서 필기시험 기회를 주거나 면접에서 직무 역량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로, 각 기업마다 주관점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스펙보다 더 혼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역상향적으로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해당 직군에 잘 맞춰서 준비한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 혹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든 그 직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다.

흔히 우리의 젊은 미래세대인 2030세대를 5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 혹은 7포세대(5포 세대+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 불린다.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이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객관성 있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가뭄 혹은 5포 세대(7포 세대)에서 벗어나는 한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과 창조경제 혁신에 앞장서서 선도를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전범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3년 전, 중학생이던 딸이 친구한테서 생후 6개월가량 된 새끼고양이를 데려오면서 고양이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코리안 숯배'라는 종인데 '치즈테미'라고 한다. 주황색 털에 줄무늬가 있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전통종이다. '도둑고양이'라는 오명을 쓰고 길거리에서 늘 만날 수 있는 놈이다.

바릴 수 없어 '여리'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키우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인간으로 치면 1년에 4년씩 나이 먹는다는 하니

고양이 사랑

과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하루에 두 번 밥 달라고 할 때면 다가와 몸을 비비고 온갖 애교를 떨다가도 배고픔을 해결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본래의 고고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독립적이고 깨끗한 점이 고양이의 장점이다. 개처럼 짖는 일도 없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다.

고양이 애호가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리'는 우리 가족에게 '따봉' 고양이다. 하루키는 단편에서 따봉 고양이와 광 고양이 구별법에 대해 썼다. 고무부지의 메릴

국수집에서 키우던 삼촌 암고양이를 우연히 키우게 된 후 관찰하면서 기록한 재미있는 글이다.

그는 고양이는 따봉과 광 두 종류가 있는데 키워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다고 했다. 외모나 혈통으로 알 수 없고 몇 주쯤 길러 본 후에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계라든 바퀴지라도 할 텐데 마음에 안 든다고 내다 버릴 수도 없는 점이 고양이 기를 때의 문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

서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따봉 고양이를 만날 확률은 대충 3.5마리나 4마리에 한 마리 풀이라고 했다. 자신의 삼 고양이는 태생이 의심스러웠지만 실은 최고의 따봉이었다고 했다.

'상실의 시대'나 '1Q84'등 하루키의 작품에는 고양이가 중요한 메타포(은유)로 자주 등장한다. 하루키의 유별난 고양이 사랑이 그를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광주시가 길 고양이 관리를 위해 급식소 설치와 종성화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길 고양이는 도둑고양이'라는 오명을 벗으면 좋겠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